

Robert Vannoy 박사, Kings, 강의 16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앗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종말(기원전 722 년),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종말(기원전 586 년)

IV. 북왕국의 몰락 1. 살룸과 예후 가문의 멸망 – 왕하 15:10-15

좋습니다. 로마 숫자 IV 아래의 "C"로 내려갑니다. "북왕국의 몰락." "1"은 "살룸과 예후 집의 종말, 왕하 15:10-15"입니다. 열왕기하 15 장 10 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거슬러 모반을 하였느니라. 그는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 우리는 로마 숫자 III, A 부터 D 까지 다시 논의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북쪽 왕국에서 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6 개월 동안 통치한 뒤 살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것은 예후의 왕조가 4 대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훨씬 이전에 주어진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0 장 30 절을 보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예후 다음으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세,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 왕조의 종말은 살룸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암살하는 일이다.

이제 이 시점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북왕국의 상황은 정말 악화되었습니다. 살룸 다음으로 남은 왕들 가운데는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므나헬과 호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앗수르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살룸, 브가히야, 베가는 암살당했고, 호세아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왕국의 급속한 쇠퇴와 그 왕조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북왕국의 남은 왕들: 므나헬,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a. 므나헬

따라서 “2”는 “북쪽 왕국의 남은 왕들: 므나헬,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먼저 우리는 므나헬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5:14-22: “살룸은 통치한 지 한 달 만에 므나헬에게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령관이었으며, 열왕기하 15 장 13 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 제삼십구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니라.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통치했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헬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후 므나헬은 10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7 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서 10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19 절에 보면 그가 앗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Pul 은 Tiglath-Pileser III 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의 연대기에서 우리는 그가 기원전 743 년에 서쪽으로 진군하여 갈그미스, 하맛, 티레, 비블로스, 다마스쿠스 등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마리아의 므나헨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티글랏 빌레셀은 사마리아의 므나헨에게서 조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5 장에 보면, “앗수르 왕 풀이 그 땅을 침노하매 므나헨이 그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어 그의 부양과 나라의 세력을 견고케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급은 메나헨이 티글랏-빌레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리차드의

*고대 근동 문헌, 283 페이지*에 있습니다. 비. 브가히야 – 열왕기하 15:22-26

종습니다. “b”는 “브가히야, 열왕기하 15:22-26”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나헨을 이어받아 2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3 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5 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 곧 다음 왕이 된 베가가 그를 반역하여 암살하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므로 그가 2 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군대 장교 중 한 사람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 언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씨. 베가 – 열왕기하 15:27-32

따라서 “c”는 “베가, 왕하 15:27-32”입니다. 그는 브가히야 휘하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반란을 주도하고 브가히야를 암살했습니다. 이번에도 암살의 정치적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가가 아마도 반앗시리아 세력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다메섹의 르신과 동맹하여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하여 아하스가 앗수르에 대항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아마도 반앗수르 세력의 우두머리일 것입니다. 반면 브가히야는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베가는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브가히야를 제거한 다음 스스로 통치했고, 27 절에 보면 그가 20 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다소 긴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9 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여러 곳을 차지하니 곧 이윤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이라. 그는 납달리의 모든 땅을 포함하여 갈릴리 길르앗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하스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디글랏 빌레셀과 동맹을 맺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디. 호세아 – 왕하 15:30-17:6 “d”는 “호세아, 왕하 15:30 부터 17:6”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하스에 관해 이야기하는 16 장이 포함됩니다. 북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이 앗수르에게 함락되었을 때 아하스가 앗수르와 동맹을 맺은 후 앗수르가 다마스커스를 공격했습니다. 34 절: “다메섹은 앗수르에게 함락되니라.” 그 무렵 호세아는 아마도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아 베가에 대한 음모를 주도하고 북 왕국의 왕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글랏빌레셀의 연대기 중 하나에서 그는 호세아를 북왕국의 왕좌에 앉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본문* 284 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 장 30 절을 읽어 보세요. “그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그를 공격하고 암살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저항보다는 앗수르와의 협력을 선호하는 세력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글랏빌레셀은 호세아를 북왕국의 왕위에 앉혔으며 그에게서 조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기원전 727 년에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 5 세가 계승했습니다. 그 시점에 호세아는 이집트에 사절을 보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앗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 장 4 절을 읽어 보십시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알았으니 이는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냈고 그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년도. 그래서 살만에셀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앗수르 왕이 온 땅을 침략하여 사마리아를 쳐서 삼년 동안 에워싸고 호세아 제 9 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더라. 그는 그들을 할라와 하볼 강 가의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성읍들에 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호세아가 결국 앗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자 살만에셀은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는 호세아를 포로로 잡았고 3 년 동안 포위된 끝에 그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비록 다음 왕인 사르곤이 그

도시를 최종적으로 함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살만에셀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소탕 작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북왕국의 포로 – 열왕기하 17:17-23 이것은 “3” “북왕국의 포로, 열왕기하 17:17-23”으로 이어집니다. 17 장은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 장 15 절에 아주 간결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따랐고 자기 자신도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이방인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일을 행하였더라.” 문제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 장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저주를 읽어보면 그 언약의 저주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온갖 재난, 메뚜기 재앙, 가뭄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서면서 언약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 땅에서 추방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여기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따라서 18 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유다 한 지파만 남았는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이 도입한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4. 사마리아인의 출현 네, 시트의 "4"는 "사마리아인의 출현"입니다. 그 장의 끝 부분에서는 아시리아 왕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정착시켰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29 절은 “각 민족이 정착한 여러 성읍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당에 지은 산당에 세웠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 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민족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후 사마리아 주변에 정착된 이 지역에서 동시적인 예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혼혈 사람들이 사마리아 근처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후대에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북왕국 포로생활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A. 앗시리아 제국 유다의 마지막 세기로 이동합니다. 로마 숫자 V 입니다.

3 페이지 하단의 "A"는 "앗시리아 제국"입니다. 여기 이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중단한 부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산헤립은 에사르하돈에 의해 계승됨(기원전 681-669 년) – 열왕기하 19:37

우리는 산헤립을 거쳐 내려갔지만 숫자 “5”를 참조하십시오. “하루 는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느니라.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9 장 37 절에는 산헤립과 에살하돈의 계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Esarhaddon 은 Ashurbanipal 이 뒤 따릅니다. BC 669-633 Esarhaddon 은 이집트 캠페인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장남 인 Ashurbanipal 이 계승했습니다. Shamas-sa-ukin 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Ashurbanipal 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작은 아들 샤마스사우킨(Shamas-sa-ukin)이 바빌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으며 샤마스사우킨이 바빌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빌론에서는 샤마스사우킨, 즉 아슈르바니팔의 형제가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리아인들 사이에 내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648 년 바빌론은 오랜 포위 끝에 함락되었고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투쟁이 벌어졌고 샤마스사우킨은 자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리아는 더 큰 통제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아슈르바니팔과 그의 형제 사이의 내부 투쟁으로 인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아슈르바니팔은 그의 군사적 업적과는 별개로 아마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며, 그것은 바로 니네베에 도서관을 설립한 것인데, 이 도서관은 1853 년에 발견되었으며 수많은 고대 문헌의 원천입니다. 즉, Ashurbanipal 의 도서관 컬렉션은 우리가 아시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텍스트를

우리에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ISBE(*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의 AT Clay는 ISBE 초판의 아슈르바니팔에 관한 기사에서 아슈르바니팔이 "아마도 기독교 이전 세기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문학 후원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이전 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학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많은 텍스트에는 이중 언어 및 삼중 언어 단어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물론 해독에 중요하고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해독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아시리아인을 전사, 무자비한 전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Ashurbanipal의 경우에는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shurbanipal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형과의 싸움으로 인해 앗수르는 약해졌고 그들은 이집트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633년 아슈르바니팔이 죽자 아시리아 제국의 종말이 가까워졌습니다.

3. 니네베의 몰락과 그 여파 - 시트에 있는 나훔 "3"은 "니네베의 몰락과 그 여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후반기는 약했다. 그가 죽은 후 바빌론은 거의 즉시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보폴라사르 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보폴라사르는 바빌로니아 통치자 중 첫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이라는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나보폴라사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은 633 년에 사망했다. 612 년에는 메대와 바벨론이 함께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제 성경 자료에 관한 한, 소선지서인 나훔은 니네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장에서는 그 도시의 사악함과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원전 612 년에 이루어졌는데

비록 니네베가 612 년에 함락되었지만 그것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 새로운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하란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8 년 동안 지속된 새로운 수도가 하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곳 하란에서 앗수르 사람들과 충돌하여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바빌론에 맞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북쪽으로 가면서 므깃도에 나가서 그가 북쪽으로 더 멀리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앗시리아에 대한 지원 은 효과가 없었고, 앗시리아는 바벨론에게 패배하여 605 년에 하란 서쪽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앗시리아의 최후의 패배가 일어났고, 605 년 바빌로니아의 승리로 패권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바빌론은 고대 근동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왕기하 23 장 29 절은 요시아가 그러한 종류의 국제 정치 투쟁에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3 장 29 절은 “요시아 왕 때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으러 전쟁터로 나갔으나 느고가 그와 마주하여 므깃도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B.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작 "B" 즉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BC 605-562 년에 통치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실제로 창건한 네보폴라사르가 죽자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 그러나 바로 그 해, 즉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같은 해인 605 년에 나보폴라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계승했습니다. 나보폴라사르의 죽음은 아마도 갈그미스가 시리아와 이스라엘로 더 멀리 진격한 후에 바빌로니아가 남쪽으로 더 멀리 진군하는 것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바빌론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05 년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604 년에 그는 다음 해에 돌아왔고 이스라엘, 특히 남부 왕국에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C. 유다의 마지막 왕들 1. 므낫세 – 열왕기하 21:1-18 좋습니다. 이제 “C”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은 “므낫세, 왕하 21:1-18”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 장 21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55 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유다 왕 중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매우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사뭇 다른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 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나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별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였느니라. 6 절: “그는 자기 아들을 불에 제물로 바치고 마술과 점술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격발하였느니라.” 11 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한 죄를 범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으며, 그의 우상들로 유다를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게 하는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13 절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접시를 닦고 닦아서 뒤집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의 통치로 인해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가 결국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3 장을 보면 10 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을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그의 코를 갈고리로 물리고 낫 족쇄로 결박하고 그를 잡아가니라” 바빌론으로.” 그때는 바빌론이 아직 앗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에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감동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통치의 끝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열왕기하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몬 – 왕하 21:19 므낫세 는 아몬이 계승했습니다, 왕하 21:19. “아몬은 22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였느니라.” 23 절은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반대하여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2 년 동안만 통치하다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요시야 – 열왕기하 22:1-23

1.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요시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중요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2 장 1-23, 30 장은 역대하 34 장 1-35, 27 장과 평행을 이룬다. 요시야 통치 기간 동안 나는 두 가지 하위 요점을 가지고 있다.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 한 권이 발견되었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것을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11 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더라”고 했습니다. 13 절에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이 크도다 그들은 거기에 우리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서가 무엇이었던 그것이 모세오경 전체인지 아니면 신명기에만 해당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분명히 그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며, 요시야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저주였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워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그 일에 관해 사람을 보냅니다. 15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곳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는 유다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였습니다.”
 저주처럼 들리네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하여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요시야가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요시야 시대
 이후로 연기됩니다.

2.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하다 열왕기하 23 장에서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23 장 전체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상 숭배는 일소되었고,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했으며 요시야 시대에 진정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취소되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3 장 26 절 끝부분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로 그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개혁은 너무 적고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 - 우상 숭배 당신 은 다음 왕이 등장하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아하스 치하에서 그들은 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그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왕하 23:31-33). 그에 대한 내용은 세 구절밖에 없지만 32 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가 그 열조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파라오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동생을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엘리아김이었습니다. 34 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니라. 그러나 그는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아김, 즉 여호야김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5. 여호야김 – 열왕기하 23:34-24:5 이제 “5:” 여호야김, 열왕기하 23:34 부터 24:5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예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605 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그는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605 년 갈그미스에서 앗수르 에 대한 바벨론의 승리로 국제 권력 구조에 정말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여호야김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몇 개의 구절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서에는 그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에게 반역죄로 들렸습니다. 예레미야 26 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와의 전, 즉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며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예레미야 36 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야킨 왕이 읽은 두루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6 년 여호야김 4 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절. , 유다와 그 밖의 모든 나라는 내가 요시아 왕 시대에 너희에게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여호야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3 절에 “여후디가 두루마리 서너 단을 낭독할 때마다 왕이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잘라내어 두루마리를 다 불사르기까지 화덕에 던졌더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왕과 모든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대신에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더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고

여호야김에게 이르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멸절하리라 기록하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몸은
 밖에 버려져 낮에는 더위에 노출되고 밤에는 서리에 노출될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수종들의 악행을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 과
 유다 자손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야김 시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 장 1 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노하매 여호야김이 삼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은 한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다가 그 후에 반역한 것
 같습니다. 601 년에 느부갓네살은 여러 민족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4 장 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사람과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악탈자들을 보내어 그를 치게 하셨느니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가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6. 여호야긴 – 왕하 24:6-16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었다, 왕하 24:6-16.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3 개월만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고냐라고도 불립니다. 597 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합니다. 열왕기하 24 장 12 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귀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였느니라.” 그것은 597 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통치자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는 맛다냐, 즉 시드기야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맛다냐 또는 시드기야라는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그는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맛다니야, 즉 시드기야에 관해 읽은 바에 따르면 그는 11 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바빌론의 지배에 반역했습니다.

7.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다 – 시드기야 (기원전 586 년)

586 년 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여 포위하고 마침내 그것을 빼앗아 성전을 포함한 도시를 파괴하고 시드기야 또는 맛다니야를 바로 여기 다메섹 북쪽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리 블라 에서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8.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됨 한편,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지명자일 뿐이고 곧 살해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달리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tages of Exile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기에 잠시 투명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은 앗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유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지점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된 5 가지 참고 자료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15:29 입니다. 기원전 730 년경에 디글랏-빌레셀은 베가의 통치 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열왕기하 18 장 11 절, BC 722-721 년에 살만에셀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실제로 북왕국에서 두 번의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730 년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원전 722-721 년입니다.

열왕기하 24 장 1 절에서 그가 남왕국에 온 때는 갈그미스 전투 직후인 605 년인데, 이것은 포로기의 작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 장 1-

4 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당시인 605 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는 여호야김 제 3 년이었는데, 그 때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몇몇 귀족들과 함께 조공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는 갈그미스 직후인 605 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24:14-16, 그것은 기원전 597 년, 대포로 기간에 여호야킨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 년 열왕기하 25:11 과 12 에는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멀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단계를 포함하는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일종의 과정 이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배는 2012 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5 년 또는 586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단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586 년을 유배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86 년 이전에도 포로가 잡혀간 것을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급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안나 블롬버그(Anna Blomberg)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